

식품 줄인상에 계란값마저 4년만에 최고...밥상물가 ‘비상’

계엄사태 후폭풍...식품기업 너도나도 인상 5% 이상 된 품목 19개
농촌경제연구원 8월까지 계란값 1년전 대비 최대 18.5% 인상 전망

서민의 기본 반찬 재료인 계란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식품기업들의 잇따른 가격 인상으로 가공식품 물가가 반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먹거리 재료인 계란마저 급등할 경우 서민 밥상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주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5년 산란계 농업관측 6월호’에 따르면 계란 산지가격은 향후 3개월 동안 특란 10개 당 1750~1950원의 가격

이 책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보다 12.4~18.5% 가량 높고, 평년보다도 9.9~15.8% 높은 수준이다.
KREI가 오는 8월까지 계란 산지가격 강세를 전망한 이유는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의 고령화, 자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염성 기관지염 등 각종 질병 발생으로 인한 계란 생산량 저하가 꼽힌다.
계란 산지가격은 지난 3월까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근 급등하고 있는 추세다. 계란(특란 10개) 산지가격은 지난 4월 1773~1838원으

로 전년 동월에 견줘 10.2~12.2% 올랐고, 5월에도 1790원에 육박하는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상승폭마저 커졌다. 지난 5일 기준 계란 산지가격은 1900원으로 전년 동월(1646원) 대비 15.4% 높았다.
계란 소매가격도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계란(특란 30개) 소매가격은 7026원으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47개월만에 7000원 선을 넘어섰고, 지속 상승하고 있다. 특란 10개 당 소매가로 환산하면 2342원 수준이다.
KREI는 “지난 3월 충청권 고병원성 AI로 인해 지역 간 물량 불균형이 발생했고, 전국 계란 산지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산란계협회 역시 지난 3월 계란(특란 1개) 산지 가격이

146원이었지만, 최근 190원 수준으로 30% 가까이 올랐다고 고시했다. 이어 정부 규제 및 소매점의 폭리로 인해 계란 가격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오는 9월부터 산란계 1마리 당 사육면적 최소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75㎡로 확대됨에 따라 농장별로 사육가능한 산란계 마릿 수가 줄어들면 계란 생산이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계란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가공식품 물가가 또다시 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빵을 비롯한 베이커리 등 다양한 품목에 계란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가공식품 업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재료 등의 물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지난 반년 동안 가격이

오른 가공식품 품목은 53개로 통계청의 전체 조사 품목의 72%에 달한다.
특히 최근 반년 간 5% 이상 가격이 오른 가공식품만 19개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초콜릿이 10.4% 올랐고, 커피도 8.2% 뛰었다. 또 양념 소스·식초·젓갈류는 7% 이상 상승폭을 보였고, 빵·잼·햄·베이컨 등도 6% 가까이 물가가 상승했다. 이 밖에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어묵, 라면 등은 5% 가량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는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4.1%로 집계됐는데, 이는 12·3 계엄사태 직전(1.3%)의 3배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새 주인 못 찾은 위니아...이달 중순 상장폐지 예정

광주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불가피

광주 가전산업의 한 축을 지탱해온 대우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 위니아가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돼 지역 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위니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를 통해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 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 등이 꼽혔다.
상장폐지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며 주권 정리매

매 기간은 9일부터 17일까지다. 주식 거래는 2023년 12월 22일부터 정지돼 있다.
광주시 광산구에 본사를 둔 위니아는 1995년 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체’로 김치냉장고 ‘뽕’을 일으켰지만 최근 수년 사이 가전 업체 간 경쟁 심화, 매출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2023년 10월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올해 초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했지만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월 말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이후 인수합병(M&A) 투자자 유치 등을 추진했으나, 3월 사모펀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와 지역 냉동기기 제조 업체 광원이엔지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새로운 인수 의향 기업을 찾지 못한 것으

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선 위니아가 M&A가 아닌 자산 매각 또는 영업권 양도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매우기에도 벅할 것이라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박영우 전 대우위니아 그룹 회장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그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GICON, 지역 콘텐츠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중국 항저우 ‘CICAF 2025’참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CICAF 2025’에 참가해 광주지역 소재 애니메이션·캐릭터 기업 4곳과 함께 광주 기업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올해로 21회를 맞은 CICAF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애니메이션 전시회로, 기업 간(B2B)·소비자 대상(B2C) 전시를 동시에 개최하는 게 특징이다.
GICON은 행사에 앞서 광주지역 콘텐츠 기업

대상 중 ‘5브릭스’, ‘스튜디오지바바’, ‘메리버스 스튜디오’, ‘보타스튜디오’ 등 4개사를 최종 모집·선정하고, 현지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을 주선하는 등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지역 기업들은 현장에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독창적인 콘텐츠를 소개하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지난 2일까지 진행된 메인 전시회에서 지역 기업 공동 전시관을 운영해 13건의 상담실적과 27억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냈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GICON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밀집모자 쓰면 여름 멋쟁이
광주신세계 본관 3층 ‘에릭자비츠’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여성용 모자를 선보이고 있다. 에릭자비츠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규 오픈 기념으로 10% 할인 금액에 5%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에릭자비츠는 특수소재인 ‘스퀴시’를 사용해 통기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녀 수영장, 해변가 등 여름철 피서지에서 활용도가 높다. 대표 상품으로는 ‘챔프바이지’, ‘스퀴시 캡’ 등이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경제 사정 어려운 청년, 오늘부터 연 2% 대출

취급기관 광주은행 등으로 늘려

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들이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를 연 2%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

상으로 이차보전 사업 시행을 통해 9일부터 연 2% 금리 상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利差補填)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분을 지급해 저소득층·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햇살론 유스 금리는 기존 연 3.6%에

서 1.6%포인트(p) 인하된 연 2%로 내려갔다.
금융위는 햇살론 공급 규모와 채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증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공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취급 기관도 기존 기업·신한·전북은행 등 3곳에서 광주·토스·하나(이번달 예정)·제주은행(하반기 예정) 등 4개 은행이 신규로 참여해 총 7곳으로 늘어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정보보안·개인정보관리

국제표준 인증 동시 획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aT가 운영하는 ‘농식품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O 27001)’과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701)’ 인증을 동시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ISO 27001은 정보보안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표준으로,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는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춘 경우 부여된다. 또 ISO 27701은 개인정보보호 관리 절차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국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부여되는 인증이다.
aT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인증 동시 획득이 국



제적 수준의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을 공인받고,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국 aT 부사장은 “이번 ISO 국제 인증 동시

획득을 계기로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상의 지역기업 동남아 시장 진출 돕는다

FTA센터 필리핀 시장개척단 파견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광주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서해·제주 FTA센터 필리핀 시장개척단’ 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지역 기업이 FTA 활용에 해외시장 진출과 매출 확대 등을 돕고자 광주FTA통상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파견된 시장개척단은 에프아이티㈜, 유림제과(유), ㈜유기농마루 등 광주지역 유망 중소기업 3개사와 제주·인천·충남 등 5개 지역의 15개 기업이 참가했다.
현지 바이어와 1대1 수출 상담회, 현지 시장조사, 우수 제품 홍보를 위한 특별 행사 등이 진행됐으며 현지 유통업체·바이어와의 교류를 통해 수출을 위한 MOU 체결 등도 이뤄졌다.
필리핀 세부는 최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흥 소비시장으로, 뷰티·식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현지 시장 수요에 대

응하고자 사전 시장 조사, 참가 기업의 제품 특성에 맞춘 맞춤형 바이어 매칭, 통·번역 등 수출 상담을 지원해 지역 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기업은 현장에서 약 24만달러(한화 약 3억 3000만원) 규모의 구매 의향을 확인했으며 1만 달러 규모의 MOU 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7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4	6	8	32	42	31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384,026,094		20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0,145,873		92	
3	5개 숫자일치		1,451,675		3,178	
4	4개 숫자일치		50,000		164,364	
5	3개 숫자일치		5,000		2,723,718	